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09 2025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25 / 9

시절 인연	02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4
법정 스님 따라 하기	08	무심코 뱉은 한마디 말의 무게
법정 스님 편지	12	어제 캐나다의 밴쿠버에 왔다.
법정 스님 향기	14	법정 스님이 사랑한 '공간'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16	보구중생묘덕普救衆生妙德 주아신 3
스님에게 전하는 이야기	19	진정한 행복을 배웁니다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20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5년 9월 1일 발행 / 통권 367호 / 등록일 1999년 6월 23일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발행 편집인 덕조 / 기획 편집 홍정근

발행처 (사)맑고 향기롭게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팩스 741-4698

디자인 인쇄 디자인나경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법정 스님에 의해 창간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팩스 (02)3672-5947

홈페이지 <http://www.gilsangsa.or.kr>

대표메일 kilsangsa@hanmail.net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4

🌸 **이계진** 저도 다기를 좋아해서 꽤 모았습시다만, 하나 사서 올 때마다 만족하지 못하고 ‘아,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가끔 쓸데없는 것이 너무 많아 골치가 아플 때도 있어서 좀 정리하려고 해도 들었다 놔다 들었다 놔다 하다가 결국 버리지 못하고 맙니다.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꾸 쌓여서 물질 속에 갇혀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법정** 혼자 사는 제가 표준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수행자뿐 아니라 일반 생활인들도 욕심을 버리는 마음, 그런 정신으로 살게 되면 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겁니다.

🌸 **이계진** 그럼 생활 속에서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 **법정** 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림으로써 새로운 것을 얻는다고 여겨야 진짜 버림이 완성이 됩니다. 버림이 곧 소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버릴 수 없게 됩니다. 버릴 때는

냉철해야 합니다. 일도양단, 칼을 한 번 내리쳐서 두 도막을 내는 그런 용단이 필요하지, 이렇까 저렇까 망설이면 못 버립니다. 다음에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여기는 헛된 집착도 버려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다시 구하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물건을 대하면 미련이 없어요. 저도 책을 좋아해서 곁에 두고는 합시다만, 읽고 나면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줍니다. 누가 보면 “왜 그런 귀찮은 일을 벌이는가.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 그냥 두면 될 텐데...” 변덕스럽다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집착이 생깁니다. 그러니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니까요. 또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 **이계진** 버림은 곧 비움이고, 텅 비었을 때 느끼는 마음의 충만, 이럴 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스님께서서는 무소유에 관한 글을 포함해 참 많은 글을 쓰셨는데 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법정** 저는 부처님 출가 제자인 수행자입니다. 중이 공밥을 먹을 수는 없으니, 뭐라도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무슨 절을 맡은 것도 아니고 어디 정기적으로 나가서 포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도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사회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소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일상 신변을 늘어놓는 것처럼 보여도 제가 쓴 글이 세상에 나가면 또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한 자 한 자, 한 문장

한 문장 되새기며 쓰곤 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글쟁이가 아니라서 청탁이 없으면 거의 글을 쓰지 않습니다. 일기나 쓰는 정도지요. 청탁 글도 마감이 있어서 쓰게 되는 것이지 마감이 없으면 글 한 줄을 못 써요. 생각이나 느낌, 그날 하루의 경험 같은 것을 가까운 친구를 만나 차한잔 나누며 이야기하듯 글을 쓰다 보니 그게 책이 되고 또 일반 독자에게 읽히고 하는 것이지 무슨 의도가 있어 어떤 글을 써야겠다거나 어떤 주제를 써야겠다거나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일상에서 내가 생각하고 느낀 것을 이웃과 나누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시들해요. 초파일 전에 무슨 에세이라고 해서 책 원고를 하나 정리했는데, 이제 그런 유의 책에는 스스로 신선감이나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는 쓰지 않으려고 해요. 다음에 책을 낸다면 종교와 철학에 바탕을 둔 명상 계통의 그런 글을 써 보고 싶습니다.

🌸 **이계진** 읽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독서를 참 많이 하시지요? 어떤 기준으로 책을 선택하십니까?

🌸 **법정** 책을 읽는다는 것은 탐구이자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어떤 작가의 작품이 마음에 들면 그 작가가 쓴 책을 다 읽어야 직성이 풀려요. 심지어 그 작가가 살았던 곳에 가서 그의 궤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가 걸었을 법한 길을 걷고, 그가 앉았을 것 같은 벤치에 앉아 그와 같은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활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사상을 읽는 것이니, 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진정한 독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 여름에는 그리스에 갔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살았던 크레타섬에도 들렀습니다. 그 섬은 카잔차키스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그리스인 조르바』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었던 사람과 작가가 함께 일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때의 경험이 훗날 책을 집필하는 원천이 되었을 테지요. 이처럼 지리와 풍토적 특성을 몸으로 느끼게 되면 작가나 책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독서 여정이 되는 셈입니다.

어떤 책을 읽느냐도 물으셨는데, 전에는 명상 서적을 주로 읽었습니다만, 요즘은 나 자신을 읽는 쪽으로 서서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꼭 책을 들고 페이지를 넘기는 것만이 독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읽는 것도 독서의 한 갈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성찰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책장을 넘기듯 하루의 생각을 정리하고 반성하면서 내 마음의 책을 읽고 완성해 가는 것이지요.

🌸 **이계진** 최근 읽으신 것 가운데 오늘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 권하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 **법정** 얼마 전에 출판사 친구가 보내 준 책인데, 『월든』을 쓴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일기를 묶은 책이 있습니다. 소로는 20여 년 동안 일기를 썼다고 하는데, 읽어 보니 참 좋아요. 제가 몇 해 전 보스턴에 갔을 때 소로가 살던 오두막에도 가고 월든 호수도 둘러봤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거주지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사색하고 내적

성찰을 할 수 있는 철학적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공간에 들어가면 삶의 본질과 목적은 무엇인가 고민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현장에 가 보면 더 생생하고, 활자화되지 않은 생각까지도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가령 『금강경』이나 『법구경』 또는 『숫타니파타』 같은 경전을 처음 읽으면 사실 머리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활자의 모음이잖아요? 그런데 인도 순례를 떠나 기원정사 터 같은 곳에 가면 방에 앉아서 읽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감흥을 느낍니다.

모든 것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깨우칠 때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작가의 체취나 살았던 곳의 풍습, 기후 같은 것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작가가 더 친숙해지고 자신이 작가의 세계에, 그 영혼의 세계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 **이계진** 지금 스님이 입고 있는 법복을 보니까 옷깃도 그렇고 여러 군데 꿰맨 자국이 보이는데 산을 다니시다 옷이 찢어지면 바느질도 하십니까?

🌸 **법정** 그럼요, 이 옷도 한 5~6년 입었을 거예요. 이렇게 꿰맨 것도 옷이 닳고 삭아서 그런 건데 우리는 행자 시절 때도 그렇고 선방에 다닐 때도 그렇고 이런 옷 입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꿰맨 자국 같은 것은 아무렇지 않은데 이게 또 너무 지나치면 마치 티를 내는 듯싶기도 합니다. 과하지 않게 중용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 마음과 실천의 조화를 이루는 길이었지요. 옷을 기운 것은 부끄럽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을 기워야 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테니까요. 또 내가 걸친 옷이 좀 해졌다고 해서 어떻

게 함부로 버리겠습니까. 이것도 다 시주를 받은 것이니 우리에게는 빛입니다.

🌸 **이계진** 저희가 보기에다 낡고 해진 법복이 더 품위 있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어떻게 확산하고 전개하면 좋을지 한말씀 들려주십시오.

🌸 **법정** 이 운동은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웃을 돕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환경을 살리는 일에도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 하나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일이 중요하고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므로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 **이계진** 스님께서는 욕심 없이 사시기는 합시다만, 그래도 불자로서 부처님께 원하시는 바가 있기도 할 텐데요, 그런 원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법정** 원이라기보다는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알맞을 듯 싶습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지금보다 더 간소하고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본질적인 삶이고, 또 제 삶에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이 글은 1996년 5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약수암에서 법정 스님과 이계진 아나운서 대담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대담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으며, 4회(6월~9월 호)에 걸쳐 연재되었습니다.

무심코 뺏은 한마디 말의 무게

부처님이 슈라바스티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존자 사리불은 밤낮으로 세 차례씩 천안天眼으로 세상을 살피면서 제도할 만한 일이 있으면, 곧 그 자리에 가서 제도했다.

어느 날, 장사꾼들이 장사하러 다른 나라로 떠나면서 개 한마리를 데리고 갔다. 도중에 장사꾼들은 피곤해서 잠을 잤다. 이때 배고팠던 개가 장사꾼들이 가지고 가던 고기를 훔쳐 먹었다. 한숨 자고 일어난 그들은 고기가 없어진 걸 보고 잔뜩 화가 나서 개를 두들겨 패 주었다. 이 바람에 개는 다리가 부러졌고, 그들은 빈 들에 개를 버린 채 길을 떠났다.

이때 존자 사리불은 그 개가 땅에 쓰러져 굶주리고 괴로워 신음하면서 거의 죽게 된 것을 살펴 알았다. 그는 가사를 입고 밭우를 가지고 성에 들어가 밥을 빌었다. 얻은 밥을 가지고 성을 나와 굶주린 개한테 가서 밥을 주었다. 개는 그 밥을 먹고 생기가 돌자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사리불은 이 개에게 좋은 법문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개는 이내 목숨이 다했고, 슈라바스티의 한 바라문 집에 다시 태어났다. 사리불은 홀로 다니면서 걸식을 했다. 바라문이 그를 보고 물었다. “존자께서는 홀로 다니시는데, 시중드는 사미가 아무도 없으십니까?”

“내게는 사미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들이 있다는데, 내게

줄 수 없겠습니까?”

“내게 균제均提라는 아들이 하나 있긴 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서 심부름을 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자라면 존자께 출가케 하도록 하지요.”

사리불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 두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일곱 살이 되었을 때 사리불은 다시 바라문에게 가서 그 아들을 청했다. 바라문은 곧 그 아들을 사리불에게 맡겨 출가시켰다.

사리불은 그 아이를 제타 숲으로 데리고 가서 법문을 차례차례 일러 주었다. 그는 마음이 열리고 뜻이 풀려 아라한이 되었다. 여섯 가지神通력이 트이고 공덕을 두루 갖추게 되었다.

이때 사미 균제는 처음으로 도를 얻은 후, 자신의 혜안으로 지나간 세상일을 돌이켜보았다.

“나는 본래 어떤 업을 지어 현재의 몸을 받았으며, 거룩한 스승을 만나 아라한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전생을 살펴보다가, 한 마리 개였던 자신이 스승 사리불 존자의 은혜로 이 몸을 받아 도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환희심이 솟아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스승의 고마운 은혜를 입고 짐승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제는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스승을 잘 모시고 언제까지나 사미로 있으면서 큰 계(비구계)는 받지 않으리라.”

이때 아난다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 균제 사미는 전생에 어떤 나쁜 업을 지었기에 개 몸을 받았으며, 또 어떤 착한 일을 했기에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 옛날 카샤파 부처님 시절에 여러 비구들이 한곳에 모여

살았었다. 어떤 비구는 음성이 맑고 낭랑해 범패(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를 잘 불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즐겨 들었다. 그러나 한 늙은 비구는 나이가 많아 음성이 둔탁해서 범패는 잘 부르지 못했지만, 항상 노래를 부르며 혼자서 즐겼다. 그리고 이 늙은 비구는 아라한이 되어 수행자의 공덕을 온전히 갖추고 있었다.

어느 날 음성이 고운 젊은 비구가 노비구의 둔탁한 범패 소리를 듣고 조롱했다.

‘스님의 음성은 마치 개 짖는 소리 같습니다.’

노비구는 그를 불러 물었다.

‘그대는 나를 알고 있는가?’

‘저는 스님을 잘 압니다. 카사파 부처님[가섭불]의 제자이지요.’

노비구는 의연히 말했다.

‘나는 이미 아라한이 되었고, 사문의 위엄과 법도를 온전히 갖추었느니라.’

젊은 비구는 이 말을 듣자 두려운 생각이 들면서 온몸이 굳어지려고 했다. 그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했다. 노비구는 참회를 받아 주었다. 젊은 비구는 덕 있는 노비구를 깔보고 조롱한 과보로 개의 몸을 받았고, 집을 나와 청정하게 계율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해탈을 얻게 되었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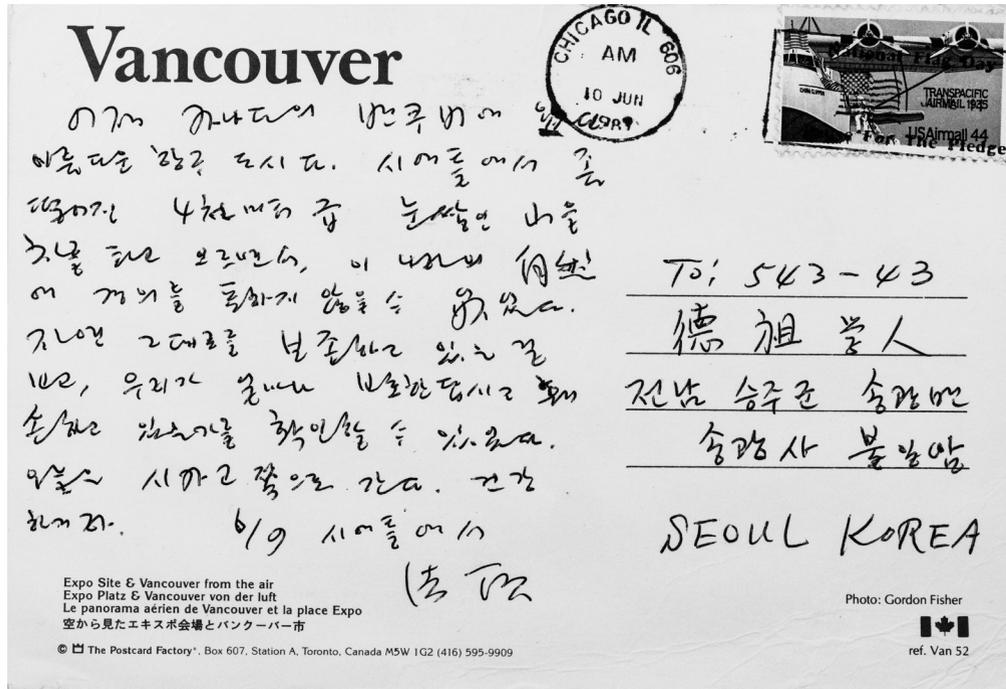
〈현우경〉 사미균제품沙彌均提品

*법정 스님 강론

〈사미울의沙彌律儀〉를 배우면서 처음 이 옛일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다. 겁주느라고 하는 소리거나 생각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뒤의 일이 더 큰 사실로 느껴져서인지 그 진실성에 믿음이 간다. 인간끼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생물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탈을 쓰고 개도 못할 짓을 마음대로 저지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다른 생물을 대할 면목이 안 선다. 그의 종착역이 어디냐를 따지기보다는 인간으로서 그 ‘있음’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삶과 죽음의 과정에서 볼 때 내 부모나 형제 아닌 생물이 어디 있겠는가.

무심코 불쑥 뺀 한마디의 말이 스스로를 윤회의 쇠사슬로 묶어 버린다는 이 이야기로 미루어 볼 때, 내 몸짓 하나, 말 한 마디, 생각 한 번이 새삼스레 두려워진다. 조심하고 조심할 일이다.

4. 법정 스님 편지



어제 캐나다의 밴쿠버에 왔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다.

시애틀에서 좀 떨어진 4천 미터급 눈 쌓인

산(山)을 차를 타고 오르면서,

이 나라의 자연(自然)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얼마나 보호한답시고

훼손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은 시카고 쪽으로 간다.

건강하거라.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1989년 6월 9일 덕조 스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6월 9일 시애틀에서

법정(法頂)

법정 스님이 사랑한 ‘공간’

스님이 첫 번째로 몸담은 곳은 통영 미래사입니다. 그 후에는 쌍계사 탐전, 해인사 퇴설당과 관음전, 통도사 원통방, 봉은사 다래헌, 송광사 불일암, 강원도 오두막에서 수행 생활을 했습니다. 스님은 몸담을 거처를 무척이나 까다롭게 골랐습니다. 조선 시대 실학자 이중환이 쓴 <택리지>에 있는 ‘사람이 살만한 터를 잡는데 필요한 조건 네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불일암과 오두막이었습니다. 몸담아 사는 공간은 삶의 터전 이기에 ‘자신의 방식대로’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거처하는 공간을 ‘경건하게’ 생각했습니다. 불일암 상량문에 쓴 ‘밤에 꿈을 꾸는 자는 들어올 수 없고, 입에 혀가 없는 자만이 가히 머무를 수 있다’라는 글이 이를 말해줍니다. 그러한 공간에서 ‘홀로’ 즐기며 살았습니다.

공간의 이름을 ‘수류화개실’, ‘수류산방’, ‘산매정’, ‘일월암’, ‘급월정’이라 짓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어 밤에는 별과 달이 드나들고, 낮에는 투명한 햇살이 비치고, 바람 소리, 새소리, 물 소리가 들리도록 했습니다.

스님은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집 한 채를 짓고 싶은 꿈을 가졌습니다. 흙과 나무와 풀과 돌과 종이로 집을 지을 것이라 했습니다. 흙벽돌을 찍어 토담집을 짓고, 방 한 칸, 마루 한 칸, 부엌 한 칸이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큰 창을 달아 밝게 하고

창 아래 조출한 서탁을 두고 문방사우와 몇 권의 책 그리고 방석 한 장만 놓을 것이라 했습니다. 마루에는 넓은 들창을 달아 밝게 하고 바람과 달빛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고, 마루 끝에는 나무 의자 하나를 두어 책도 읽고 솔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거나 붙이지 않고 그 텅 빈 벽을 ‘정신 공간’으로 삼을 것이라 했습니다.

스님은 봉은사 다래헌에 있으면서 새롭게 ‘재출가’할 곳을 찾았습니다. 송광사 자정암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낡은 자정암 건물을 허물고 불일암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불일암 본체는 14평의 한옥으로 스님이 직접 설계했습니다. 예불과 명상을 하는 곳, 책 읽고 글을 쓰는 곳, 차를 즐기는 곳, 군불을 지피고 더운물을 쓸 수 있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불일암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봄날에 스님은 길을 떠났습니다. 강원도 두메산골에 있는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해발 7백 미터가 넘는 곳에 있으며, 전기도 통신수단도 전혀 없는 태곳적 그대로였습니다. 시냇물 소리와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뿔속까지 스며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오두막에 밤이 되자 별들은 영롱하게 빛을 발했고, 소쩍새와 박새가 번갈아 가며 울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니 머리가 개운하고, 시냇가에서 물을 떠서 마셨더니 물맛도 좋았습니다. 오두막은 조용하고 맑아서 좋았습니다. 뒷골에서 올빼미나 노루 우는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지나가고, 밤에 등잔불을 켜고 벽에 기대앉아 등잔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 이런 공간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백형찬 : 서울예술대학 교수 역임, 수필가, 맑고 향기롭게 회원

보구중생묘덕普救衆生妙德 주야신 3

선지식을 따르는 마음과 심히 깊은 일체지에 관계되는 마음, 광대한 방편의 바다에 머무는 마음, 모든 집착을 버리는 마음, 세간의 환경에 머물지 않는 마음, 여래의 경지에 들어가는 마음, 고뇌의 해가 없는 마음, 거만함이 없는 마음, 싫증을 내지 않는 마음, 물러가지 않는 마음, 게으름이 없는 마음, 법의 성질을 생각하는 마음, 법문의 바다에 편히 머무는 마음, 중생 바다를 잘 아는 마음, 중생 바다를 구호하는 마음, 세계 바다를 두루 비추는 마음, 부처님의 서원 바다를 두루 내는 마음, 장애의 산을 깨뜨리는 마음, 복덕을 쌓아서 도를 돕는 마음, 여러 부처님의 열 가지 힘을 보는 마음, 보살의 경지를 두루 비추는 마음, 보살의 조도 助道[관법觀法을 돕는 도법道法이라는 뜻, 곧 오정심五停心과 육도 六度の 행을 말함]를 늘게 하는 마음, 방편 바다에 두루 관계되는 마음을 얻었다.

보현보살의 큰 원을 지극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여래의 십불찰 미진수 원해願海를 발했다.

모든 불국토를 정화하려는 원과 중생을 가르치려는 원과 법계를 두루 알려는 원과 법계에 두루 들어가려는 원을 발했다.

또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서 미래겁이 다하도록 보살행을 닦으려는 원과 미래겁이 다하도록 온갖 보살행을 버리지 않으려는

원, 여래를 가까이 섬기려는 원, 선지식을 받들려는 원,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려는 원, 순간순간 보살행을 닦아 일체지를 늘리고 끊임이 없게 하려는 원을 발했다. 이와 같은 십불찰 미진수 원을 발해 보현보살이 가진 큰 원을 성취했다.

그때 그 여래께서는 다시 그 여자를 위해, 발심 이래 쌓은 선근과 닦은 묘행妙行과 얻은 큰 결과를 열어 보여 깨닫게 했으며, 여래가 지닌 서원을 성취해 일심으로 일체지의 자리에 나아가게 했다.

선남자여, 또 이보다 10대겁大劫 전에 일륜광마니日輪光摩尼세계가 있었는데, 부처님의 이름은 인다라당묘상因陀羅幢妙相이었다. 묘안妙眼 왕녀는 그때도 그 여래가 남기신 교법 중에 보현보살의 권유에 따라 연화좌에 모신 낡은 불상을 보수하고 개금했으며, 그 위에 다시 보배로 장식하고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느니라. 생각건대, 그 여자는 보현보살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선근을 심었으며, 그로부터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왕이나 인왕의 종족 중에 태어난 것이다. 그 모습 단정하고 원만해 보는 사람마다 기뻐했으며, 항상 부처님을 뵈고 보현보살을 가까이했으며, 지금까지도 나를 이끌어 깨닫게 하고 성숙시켜 환희심을 내게 한다.

선남자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의 비로자나장 묘보련화계 전륜성왕은 다른 이가 아니라 지금의 미륵보살이고, 그때의 원만면圓滿面 왕비는 지금의 적정음해寂靜音海 주야신이니, 그 처소가 여기서 멀지 않다.

그리고 그때의 묘안 동녀童女는 바로 내 몸이었다. 나는 그때 동녀로 보현보살의 권유에 따라 연화좌에 모신 불상을 보수하

고 위없는 보리의 인연을 심어 보리심을 발했으니, 나는 그때 처음으로 발심했었다.

그 다음에 또 나를 인도해 묘덕당 부처님을 보게 했는데, 몸의 영락을 풀어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의神通력을 보며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었다. 그 자리에서 보살이 모든 세상에 두루 나타나 중생을 가르치는 해탈문을 얻었고, 순간순간 수미산 미진수 부처님을 보았었다. 그 부처님 도량에 모인 대중들과 청정한 국토를 보기도 했는데, 나는 다 존중하고 공경 공양했으며, 설법을 듣고 가르침에 따라 수행했었다.

선남자여, 나는 일체지의 광명에 의지했으므로 순간순간 한량 없는 부처님을 볼 수 있고, 예전에 얻지 못하고 보지 못한 보현의 모든 행을 다 만족하게 이룬다. 그 까닭은 일체지 광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보살이 모든 세간에 나타나 중생을 가르치는 해탈을 얻었을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들은 그지없는 행을 쌓아 갖가지 이해를 내고, 갖가지 몸을 나타내고, 갖가지 뿌리를 갖추고, 원을 이루고, 삼매에 들어가고,神通변화를 일으키고, 법을 관찰하고, 지혜문에 들어가고, 법의 광명을 얻는다. 이와 같은 일들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적정음해 주야신이 있는데, 마니광당(摩尼光幢) 장엄 연화좌에 앉아 있으며, 백만 아승지 주야신이 앞뒤로 에워싸고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떠났다.

6. 스님에게 전하는 이야기

진정한 행복을 배웁니다

가지려고 하니 더 손에 안 잡히는 걸 깨달았습니다.

깨끗하게 비우고 조금씩 천천히 채우는 걸 택하겠습니다.

물질과 욕구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고

피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기심, 욕심을 최소한으로 하고 자연의 아름다움, 순리를 따르는 게 훨씬 가치가 있다고 느낍니다.

진정한 행복은 채우려 하지 않고 비워서 차근차근 하나씩 천천히 깨닫고 배우는 게 훨씬 더 재미있는 인생인 것 같다고 느낍니다.

원하는 것 딱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는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단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사람 간의 관계와 문제의 원활함을 추구합니다.

스님!

전 오늘 하루, 길상사 방문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어 길상사를 방문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길상사 진영각 방명록에 남긴 귀한 글을 나눕니다.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모임 (02-741-4696)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 가정 460여 가구에 매주 목요일에 밑반찬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 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만발식당 급식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의 건강한 노년기와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급식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만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발식당은 어르신들의 형편에 따라 무료 또는 4,000원을 부담하는데, 매일 8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참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숲기행 하반기 일정 안내

진행일	장소	접수일
9월 27일(토)	충북 괴산 학소대 - 능운대 - 채운암 - 우암 송시열 유적	9월 1일(월)
10월 25일(토)	강원 영월 만봉사 - 싸리재 삼거리 - 납석 광업소 - 동전 연못	10월 1일(수)

- **참가비** : 회원 50,000원, 비회원 60,000원
- **후원회원의 할인 기준** : 첫 회비 납부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최소 3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에 한해서 할인 혜택 제공
- **접수 및 자세한 설명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3일(수)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 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연말 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구모임 (053-753-8883)

● 자원봉사자 모집

-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 지원활동(조리, 준비, 정리 등) / 매주 수요일 오전 9시~14시
- 청도 운문사 정기 봉사활동 / 쌀 지원 받음 / 매월 셋째 월요일 8시 30분 출발 / 10시~14시 봉사활동 / 16시 30분 도착
- 아나바다 장터, 사무보조 등 자원봉사자 모집(하루 2~3시간 의류 정리, 서류 정리 등)

● 복합문화공간 '함께' 운영(2층)

- 아나바다 장터,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대여

● 법정스님 문화관(5층) 상시 운영

● 법정스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무소유기행' 연2회 진행

● 어려운 이웃 반찬, 쌀, 물품 지원 사업

- 홀로어르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저소득 정신장애인, 난치병 환우 가정 지원

●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정서 지원 사업 : 경로급식 및 행복치료

● 아나바다 장터 운영 : 난치병 환우 돕기 기금 마련,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신발, 생활용품 등 기부받음

● 환경지킴이 활동

- 생분해 용품 사용하기, 물티슈 안쓰기, 일회용 사용 줄이기 운동 전개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경남모임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려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02-3672-5945)

자비도량참법

- 일시 : 8월 30일(토) ~ 9월 5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설법전

보름기도

- 일시 : 9월 6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하안거 해제 및 백중기도 회향

35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90일 간의 백중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행정진하신 여러 불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기 2569년 하안거 해제 및 백중기도 회향을 맞아 승보 공양 행사가 봉행됩니다. 불자님께서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기도 회향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 9월 6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10만원(영가 10위까지, 추가 1위당 5천원)
- 설판 접수 받습니다.
설판 동참자는 주지스님 특별 축원이 있습니다.
(동참금 10만원 이상 자율보시)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9월 6일(토) 오후 6시 ~ 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추계 관음기도

- 일시 : 9월 7일(일) 입재 ~ 12월 3일(수) 회향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9월 9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 일시 : 9월 15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초하루 기도

- 일시 : 9월 22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일요법회 - 용수스님(BTN 랫고명상)

- 일 시 : 9월 21일(일) 오전 11시
- 장 소 : 설법전

주한 외교관 초청 음악회

- 일 시 : 9월 26일(금)
- 장 소 : 설법전
- 식 순 : 16:00~18:15 주지스님 인사말씀
사찰음식 체험과 다도
18:30 음악회 1부
19:00 음악회 2부

포교스님의 '명상의 기초 - 이론과 명상'

- 일 시 : 9월 13일(토) 14:00~16:00
- 장 소 : 설법전
- 동참금 : 3만원
- 접 수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선禪명상'

- 일 시 : 9월 27일(토) 19:00~21:00
- 장 소 : 설법전
- 동참금 : 3만원
- 접 수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템플스테이 문의 : 010-9677-5945

2026학년도 대입수능 100일기도 안내

- 일 시 : 8월 6일(수) 입재 ~ 11월 13일(목) 회향
- 장 소 : 극락전
- 수능기도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입재 후 매일 기도는 오후 2시에 병행합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후원 나이스페이먼트 시스템을 통해 후원자님의 신용카드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 방법을 신용카드 후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직접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회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회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할 때, 직접 본회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가입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각 지부를 선택하여 후원 등록하거나, 각 지부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각 지역 모임 후원 계좌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회 법정 스님 학술 세미나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말하다”

- 일 시 : 2025년 10월 19일(일) 14:00~17:00
- 장 소 : 길상사 설법전

시간	발표 및 내용
개회식	
14:00~14:20	개회선언(전체사회) - 김호성 교수(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기조연설 - 이계진(맑고 향기롭게 전 이사) 인사말씀 및 축사
제1부	
14:20~15:10	발표1 법정스님의 사상과 초기불교 - 발표 : 김재성 교수(농인불교대학원 명상상담학과 부교수) - 토론 : 이재수 교수(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부교수) 발표2 법정스님의 '무소유' 가르침과 생명사상 - 발표 : 인경 스님(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이사장) - 토론 : 백형찬 교수(서울예술대학교 명예교수)
15:10~15:30	휴식
제2부	
15:30~16:20	발표3 법정스님의 수행관과 선명상 연구 - 발표 : 문진건 교수(동방문화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책임교수) - 토론 : 신진욱 교수(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발표4 법정스님의 민주화 운동과 전개과정 - 발표 : 여태동 박사(동방문화대학원 문학박사) - 토론 : 백경임 교수(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제3부	
16:20~16:40	종합 평가 및 토론
폐회식	
16:40~16:50	폐회사 - 덕조스님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 (사)맑고 향기롭게, 길상사